# 기출 1. 다음 편지글에서 고쳐 쓸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할머니께

할머니, 작년 여름에 함께 장터에 가서 **갈치졸임**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또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만두국**과 **떡볶기**는 너무 맛있었어요. 할머니! 항상 무리하시면 안돼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 여름 방학때 **봐요**.

- ① 갈치졸임 → 갈치조림
- ② 만두국 → 만둣국
- ③ 떡볶기 → 떡볶이
- ④ 봬요 → 뵈요

#### 360 모의고사 25회

- 6. 밑줄 친 단어를 다음과 같이 고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빗고(→빗기고) 있다.
- ② 생강차는 기침을 삭는(→삭히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이모부는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졸였다(→조렸다).
- ④ 요새 바빠서 집에 얼굴을 비출(→비칠) 시간도 없다.

## 하프 모의고사 144회

-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너는 실패가 두렵찮니?
- ② 오랜만에 봬니까 참 반갑네요.
- ③ 무엇을 <u>그리든지</u> 잘만 그려라.
- ④ 그건 <u>막을래야</u> 막을 수 없는 재난이었다.

# 기출 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문헌】

불·휘기·픈남·군보로·매아·니:뮐·씨

굦:됴·코여·름·하노·니

:시·미기·픈·므·른·フ모·래아·니그·츨·씨

:내·히이·러바·루·래·가노·니

【현대 국어 풀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갑니다.

- ① 이어 적기가 적용되었다.
- ②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 ③ 주격 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 쓰였다.

# 문법 기초 다지기 12회 (지문 선지 일치)

9. (가), (나)를 활용하여 중세 국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耶양輸융│ ...... ①<u>世·솅尊존ㅅ</u> 安한否:붛 :묻줍·고 니 록·샤·디 므·스 므·라· 오시·니잇·고

[현대어 풀이] 야수가 .....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석보상절》권6

(나)

©<u>불·휘</u> 기·픈 남·군 보루·매 아·니 :뮐·씨 곶 :됴·코 여·름 · 하·노·니

©<u>·시·미 기·픈</u> ·므·른 @<u>·フ·만래</u>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루·래 ·가·는·니

####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어지 지 않으므로, 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

- ① ③: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였다.
- ② 🕒: 주격 조사의 형태가 '|' 한 가지로만 나타났다.
- ③ ②: 일반적 표기 방식은 이어적기였다.
- ④ ②: 모음조화가 비교적 지켜진 편이었다.

## 하프 모의고사 99회

4. 다음 중 15세기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 © '•'가 독립된 음운으로 존재했다.
- © 주격 조사로 '이'와 '가'가 사용되었다.
- ❷ 평성, 상성, 거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했다.❷ '의'외에도 'ㅅ, 이'등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 ❸ 'ㄷ, ㅌ'이 'ㅣ'와 만나 'ㅈ, ㅊ'이 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 ① ⑦, ⊜ ② □, ⊜
- ③ ⑤, ❸ ④ ⑤

#### 기출 3.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것은?

- ① 내일은 잊지 않고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 드려야겠다.
- ② 오늘도 할머니께서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셨다.
- ③ 선생님께서 누나와 함께 와도 좋다고 하셨다.
- ④ 큰아버지께서는 나를 무척 아끼셨다.

## 하프 모의고사 101회

- 4. 다음 중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상대 높임 표현이 모 두 실현된 문장은?
- ① 엄마는 아빠께 서류를 드리러 회사에 갔어요.
- ② 우리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친구가 참 많으세요.
- ③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에 형님께서 용돈을 주셨습니다.
- ④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손을 **다치셨어**  $\Omega$ .

## 문법 기초 다지기 17회

#### 10. 다음 중 높임의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내일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상대높임
- ② 이 손수건 좀 할아버지께 갖다 드려. 객체높임
- ③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주체높임, 객체높임
- ④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많이 <mark>바쁘신가요</mark>? 주체높임, 상 대높임

#### 기출 4.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은?

- ① 이 건물은 학교의 체육관이요, 그 옆 건물은 본관이다.
- ②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오, 친구이다.
- ③ 늦지 않게 빨리 오시오.
- ④ 이것은 책이 아니오.

# 문법 기초 다지기 8회

- 8.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봄이 되자 들판이 파래졌다.
- ② 이것은 공책이요, 저것은 책이다.
- ③ 회계년도 안에 예산을 모두 집행해야 한다.
- ④ 운동회 날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게양되어 펄럭였다.

## 기출 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심근성 (深根性)'과 '천근성(淺根性)'으로 ③나누어 볼 수 있다. 심근성의 문화는 이념이나 정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대륙형 문화이며, 천근성의 문화는 이식과 수용·적응이 잘되는 해양성 섬 문화이다. 소나무 가지는 한번 꺾이고 부러지면 재생 불가능이지만 버들은 아무데서나 새 가지가 돋는다. 이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깐깐한 소나무문화와는 달리 버드나무는 뿌리가 얕으므로 오히려 덕을보다

- 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u>나누었으나</u>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 ② 학생들은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편을 갈랐다.
- ③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 ④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 소방직 동형 모의고사 vol.2 8회 (지문 일치)

# 14. 글쓴이가 다음 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두 문화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 특성은 뿌리의 차이에 있다. 소나무는 바람과 정면에서 부딪치면서 살아야 하므로 땅속 깊게 그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 소나무의 근본적인 특성은 버드나무보다 '심근성(深根性)'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낀다. 그래서 버드나무의 뿌리는 얕으며 잔뿌리만 무성하다. 즉 소나무와는 전연 다른 '천근성(淺根性)'에 속하는 나무다. 그리므로 소나무는 한곳에 뿌리를 박으면 여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뿌리 돌리기를 하지 않으면 이식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뿌리 없어도 사는 나무다. <중략>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근성의 문화는 이념이나 정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대륙형 문화이며, 천근성의 문화는 이식과 수용・적응이 잘되는 해양성 섬 문화다. 소나무 가지는 한번 꺾이고 부러지면 재생 불가능이지만 버들은 아무 데서나 새 가지가 돋는다. 이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깐깐한 소나무 문화와는 달리 버드나무는 뿌리가 얕으므로 오히려 덕을 본다.

우리의 문화가 지금 이 소나무형 문화에서 버드나무형 문화로 옮겨 가는 것을 근대화에 선진화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버들가지가 딱딱한 장작을 묶는 다'는 속담처럼 연하고 심지가 없기에 때로는 강한 것을 이길 수도 있는 실리주의 문화, 성장이 빠르면서도 금시시들기를 잘하는, 썩을 때는 겉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썩어들어가는 퇴폐 문화, 이 천근성 버들 문화는 일찍이 '뿌리 깊은 나무'를 노래한 「용비어천가」의 세계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인 것이다.

- ① 천근성 문화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② 조선 시대 우리 문화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 ③ 현재 한국의 문화가 겪고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 ④ 심근성 문화와 천근성 문화 중 어느 쪽이 우월한가?

## 기출 6. □~@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 잡고 → [잡꼬] ② ② : **손재주 → [손째주]** ③ © : 먹을 것 → [머글껟]

④ ② : 갈등 → [갈뜽]

## 하프 모의고사 12회

- 2. 다음 중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을 보이는 것은?
- 손재주, 바람결
- ② 뚫고, 맑지
- ③ 알약, 괜찮으니
- ④ 눕히니, 가을걷이

# 하프 모의고사 80회

- 4.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것은?
- ① 그는 신바람[신빠람]에 취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 ② 만날 사람[만날싸람]은 다 만난다는 게 내 생각이다.
- ③ 나는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께 양말을 <u>신겨[신껴]</u> 드렸다.
- ④ 더 공부를 해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정말 <u>같등[같</u> <mark>뜽]</mark>이다.

#### 기출 7. □,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장 속에 안겨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절을 안긴문 장이라고 하며 이러한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 고 한다. 안은문장에는 ③명사절을 안은문장, ⑥관형절을 안은문장, 부사절을 안은문장, 서술절을 안은문장, 인용절 을 안은문장이 있다.

- ① 🗇 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 ©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녀를 떠올린다.
- ② ③ 오늘은 밖에 나가기가 싫다.
  - © 누나는 마음이 넓다.
- ③ ᄀ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다.
  - □ 꽃이 활짝 핀 봄을 기다린다.
- ④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 그녀의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 하프 7회 (선지 일치)

3. 다음 중, <보기>의 문장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 今리는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
- □ 그는 목이 터지도록 민주화를 외쳤다.
- © 정동진의 일출을 보려고 우리는 밤기차를 탔다.
- ◉ 사변이 발발했던 그 해는 유독 가뭄도 심했었다.
- ◎ 꽃잎은 수런수런 정담을 나누고 구름은 방글방글 미소
- 를 지었다.

안은문장 이어진문장

① ①, 心

©, ⊜, ⊙

2 ¬, © 3 ¬, ©, ⊜ ©, @, @ ©, @

(4) (L), (E), (D)

⊙, ⊜

#### 기출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호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람 올가. 내 모음 둘 다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놈픈 뫼히 올라가니 **구롬**은 콧니와 **안개**는 모소 일고. 산쳔(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쳑(咫尺)을 모른거든 쳔리(千里)를 보라보라. 출하리 물구의 가 비 길히나 보랴 호니 샤공은 어디 가고 븬 비만 걸렷눈고. 강텬(江天)의 혼쟈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옥 아득훈뎌이고. 모쳠(茅簷) 춘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쳥등(半壁靑燈)은 눌 위호야 불갓눈고. 오른며 노리며 헤뜨며 바니니 져근덧 역진(力盡) 호야 픗줌{을 잠간 드니 졍셩(精誠)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フ톤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셰라. 민유의 머근 말씀 슬픈장 숣쟈 호나 눈물이 바라 나니 말숨인들 어이호며 졍(情)을 못다 하 목이조차 몌여하니 오뎐된 계셩(鷄聲)의 줌(은 엇디 까돗던고. 어와, 허소(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보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출하리 싀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둘이야 콧니와 구준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
- ②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특정한 시어를 반복해 안빈낙도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 다.
- ④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꿈에서 임과 재회하고 있다.
- ②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다.
- ③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 ④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

# 11. 윗글의 단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은?

① 구롬 ② 안개 ③ 일월 ④ 믈결

## 하프 모의고사 96회

# 6.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 고 안개는 무슨 일인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어 찌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랴 차 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된지고 의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렷는고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 보니 임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지고 모첨(茅簷) 찬 자리에 밤이 돌아오니 반 벽(半壁)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어느덧 힘이 다해 ①풋잠을 잠깐 드 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자 하니 눈물 이 바로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 오니 ⑤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바로 일어나 앉아 창 을 열고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

리 사라져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 각시님 달은 말고 궂은비나 되소서.

- 정철 <속미인곡>

- ① 에는 '님'에게로 갈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 ② 🕒은 화자의 소망이 잠시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이
- ③ ⓒ에는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 ④ ②에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참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당부의 마음이 담겨 있다.

#### 기출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 마족 휘여진 다를 뉘라셔 굽다턴고 <sup>③</sup>구블 절(節)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호노라

- 워천석

(나) 동지(冬至)人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①<u>버혀 내어</u>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넌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鶻)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험 아래 쟛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낼싀만졍 @에헐질 번 하괘라

- 작자 미상

####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중심 소재는 '디'이다.
- ② (나)의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
- ③ (다)는 종장의 길이가 길어진 시조 형식을 보여 준다.
- ④ (가)~(다)는 종장 첫 구에 음수의 제약을 갖고 있다.

#### 18. 윗글에서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굽힐

② ⑤ : 잘라 내어③ ⑥ : 목이 터져라④ ② : 멍이 들

# 하프 모의고사 156회 (세 지문 모두 일치)

##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는 마추 휘여진 다를 뉘라셔 굽다턴고 구블 절(節)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호노라

- 원천석

(나)

동지(冬至)人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넌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 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험 아래 쟛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낼싀만졍 에헐질 번하괘라

- 작자 미상

- ① (가)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냈다.
- ② (나)는 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여성 특유의 감성을 표현했다.
- ③ (다)는 인간 세계의 계층 관계를 동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 ④ (가)와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기출 19. 다음 글의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십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 점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 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전이 서울의 미술관 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 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 ① 르네 마그리트의 생애
- ② 초현실주의 유파의 탄생
- ③ 현대미술과 상상력의 소멸
- ④ 데페이즈망에 대한 관심과 의의

## 360 모의고사 34회 (지문 일치)

10.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볼 때 ③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십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 점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 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 전이 서울의 미술 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은 것이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③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것이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 ① 데페이즈망은 창작자의 예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 ② 데페이즈망은 다른 예술 작품들과 달리 허구의 이미지 이기 때문에
- ③ 데페이즈망의 기이함이 합리와 논리를 넘어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 ④ 데페이즈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적·예술적 상상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

#### 기출 20. □과 같은 표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③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승무」
- ②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 ③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④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소방직 동형 모의고사 vol.2 5회

## 19. □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 나타난 것은?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를 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
"아니다 아니다!"라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라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③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 김명수,「하급반 교과서」

① 한 줄의 시(詩)는커녕 /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올라 /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김광규, '묘비명'

②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김광균, '와사등'

③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④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김수영, '풀'

# 소방직 동형 모의고사 vol.2 7회

#### 1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 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①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시상의 역전으로 화자의 정서도 전환되었다.
-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는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④ 모순 어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